

# 연극으로 인생 2막... 어르신 끼에 반하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탐골대동제... 11월 25~26일 열어

고만고만한 키 그리고 짧은 파마. 어르신들이라고 다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11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취미도 재능도 모두 제각각이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소속 어르신들의 학예제인 탐골대동제, '넌 내게 반했어'가 11월 25~26일 양일간 개최됐다. 복지센터 내 포크댄스, 합창, 하모니카, 가야금 등 31개 동아리에서 2백여명이 참가했을 만큼 다양한 재능을 가진 어르신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풍물동아리의 흥겨운 무대로 막을 올린 축제는 태평무, 홀라춤, 라인댄스, 팝송·대중가요 매들리 공연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탐골문화예술학교 3학년 졸업생들의 연극 '멋진 인생'으로 정점을 찍었다.

관객들은 전문배우 못지않은 연기실력을 뽐내는 어르신들에게 한순간에 매료됐다. 극 중간에 대사를 잊어버리는 위기도 있었지만 발성부터 호흡, 연기 표현까지 3년간 갈고 닦아온 실력을 흠집낼 수는 없었다.

시아머니가 머리를 구박할 때마다 혀를 짹짹 차기도 하고 배우들이 지나간 세월을 안타까워하며 '청춘을 돌려달라'고 노래할 때는 '잘한다'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무래도 경험에 기반해 만들어진 연극이다 보니 관객들의 호응 역시 어느 공연보다 높았던 것이 사실.

연극 '멋진 인생'은 어르신이 직접 경험해 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공동창작극이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내 문화학교인 탐골문화예술학교 연극반 3학년 학생 15명이 연출가의 도움을 빌려 자신의 이야기를 각색해 만든 작품이었던 것. 6.25 전쟁 당시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를 담은 1장 '타황살이', 일만 하다 보니 세월이 다 흘러가버렸다는 2장 '청춘을 돌려다오', 시어머니의 구박과 남편의 무관심에 속았...

### 센터 소속 어르신 위한 학예제 합창·가야금·연극·춤 등 다채 31개 동아리서 2백여명 참가 호응

했던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3장 '웃는 얼굴 다정해도' 등으로 이루어졌다. 연극 제목 역시 어르신들이 직접 정했다.

"젊은 시절 꿈이 가수나 연기자였다"는 연극반 김만수(71) 어르신은 "늦게나마 예전 꿈을 이룰 수 있어서 더없이 행복하다"고 했다. 경찰, 신부님 등 맡은 배역에 따라 연기 공부를 위해 그들을 직접 찾아가 관찰할 정도로 연극에 대한 열정만큼은 젊은이 못지않았다.

김중재(71) 어르신은 "시아머니 연기가 실감나 참 재미있게 봤다"며 "내 나이 또래



서울노인복지센터 탐골문화예술학교 어르신들이 연극 '멋진 인생'을 선보이고 있다.

양반들이 멋지게 무대에 서는 것을 보니 나도 연극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객석 끝에서 공연을 유심히 지켜보던 이희구(76) 어르신 또한 "해마다 참가자들의 실력이 날로 발전되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보는 사람도 즐겁지만 공연을 하는 이들은 설렘과 흥분에 더욱 신나는 시간이었다. 실용댄스를 선보이기 전 무대뒤에서 파트 너와 호흡을 맞추던 김양택(82) 어르신은 긴장되지 않냐는 질문에 "하면 하는 거지 떨릴게 뭐 있냐"며 호기롭게 웃어넘겼다. 그는 "춤을 출 때는 기분이 달라진다. 나이 먹고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없을 줄 알았다"며 "춤을 배우고 난 후 삶에 활력이 생겼

다"고 했다.

10년 동안 서울노인복지센터 풍물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여심(63) 보살은 풍물을 배우고 난 후 건강해졌다는 경우다. 그는 "10년 동안 감기에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항상 즐겁게 음악에 맞춰 몸을 늘리고 하는 것이 그 비결"이라고 말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장 최희우 스님은 "오늘 무대를 보는 이들은 노년을 적극적으로 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반했을 것"이라며 "노년의 아름다움을 거울 삼아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고 행사 의미를 전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 발달장애인, 나의 꿈 주장대회

### 성북복지관, 발달장애인권리향상 지원프로그램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선재)은 11월 24일 발달장애인권리향상 아동들을 위한 '자기주장대회'를 개최했다. '현대자동차와 함께 움직이는 세상'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이었다.

발달장애인들은 본인 스스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음에도 장애라는 이유로 연령에 맞는 대우를 받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

복지관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이 세상에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게 도와주는 의미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 자기주장에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발달장애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대회를 통해 자기 삶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기 위함이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번동중학교 특수학급 학생 15명은 하나같이 "학교에서도 발표를 안 해봐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다"며 걱정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은 스스로 원고를 쓰고 지워가며 발표가 주는 설렘을 가득 만끽하고 자신감도 얻었다는 후문이다.

'내 친구 소개하기'와 '친구와 나 사이의 벽' 2가지 주제로 발표를 한 최유진(년 11) 학생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



발달장애인 학생이 자기 주장대회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지 못해 친구들에게 번번이 부탁할 일이 많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에 솔직하게 담았다. 최 양은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번동중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사 진은숙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잘 할 수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며 "뿌듯함과 동시에 감동을 느꼈다. 특히 유진이 발표를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번동중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사 진은숙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잘 할 수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며 "뿌듯함과 동시에 감동을 느꼈다. 특히 유진이 발표를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배현진 기자

## 천수천안,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전달

### 12월 4일 송년법회서...자원봉사자 표창도

천수천안 불교자원봉사단(이사장 대오)이 12월 4일 경기도 고양시 아베리스 컨벤션에서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전달식과 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를 갖는다.

천수천안 불교자원봉사단은 2002년 경기도 고양시 지역 스님들이 모여 창단, 10년 넘게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단체다.

이날 행사는 최성 고양시장과 고양시 국회의원, 천수천안 관계자, 고양시시암연합회 스님 및 자원봉사자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법회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천수천안 불교자원봉사단은 이날 관내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15명에게 각 3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기금은 지난 11월 일일차집 수익금으로 조성됐다.

또 동국대 일산병원, 고양시 복지관 등 각 봉사기관에서 나눔을 실천한 이들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날 봉사상 수상자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경자 씨, 고양시장에게 덕암사



천수천안 불교자원봉사단이 고양시 저소득층 가정에게 '자비의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해선 스님의 7명, 고양경찰서장에게 김현숙 씨의 4명 등이다.

천수천안 불교자원봉사단 우수봉사자에게도 봉사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연간 200시간, 300시간, 500시간 이상 봉사자와 총 누적 봉사 3천 시간, 1만 시간 이상 봉사자들이 대상이다.

봉사단측은 "이번 송년법회에는 금년 5월 개설된 무료급식소 천수천안 자비나눔의 집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난해보다 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기자

## 진각복지기금마련 콘서트 '만월'

### 나눔문화 확산 위해 청소년 교육도 진행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회장)은 11월 22일 진각복지기금마련을 위한 콘서트 '만월(滿月)'을 서울 강남구 선릉 회담기념관에서 진행했다.

이번 콘서트는 예년과 달리, 나눔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눔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2백여명의 청소년들은 정기 봉사, 기부 등 나눔문화교육을 시작으로 야단법석, 비보잉, 흥경민, 아우스이더 등 문화공연을 즐겼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진각종 성소 총인예하를 비롯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 회장 정사, 상임이사 회성 정사, 윤희준 진선영교장, 고병원 진선영교장, 진각복지재단 산하시설 시설장 등이 참석했다.

회정 정사는 "진각복지재단은 그동안 사회의 어려운 곳에 자비를 나누며 50여개의 산하시설을 운영하며 발전해왔다.



진각복지재단이 11월 22일 나눔 콘서트 '만월'을 서울 회담기념관에서 진행했다.

12월 8일 오픈예정인 진각부자가족복지시설을 통해서도 이웃들에게 나눔을 전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후원자들에 대한 공로패도 수여됐다. 신라원 회장 홍병희, 성북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이주목 씨가 공로패를 전달받았으며 창조사랑봉사대가 자원봉사부문을 공로로 인정받았다.

배현진 기자

## 미얀마 오지 쉼터 마을 학교 건립

### 천호 월서희망재단, 11월 14일 학교 완공

미얀마 오지 마을에 사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가 건립됐다.

천호 월서 희망재단(이사장 월서, 법주사 조실)은 11월 14일 미얀마 오지 마을에 학교를 완공하고, 기념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월서 스님, 불국사 박물관장 중앙 스님, 영취사 처원 스님, 봉은사 혜연 스님, 미얀마 산디마 스님을 비롯한 마을 주민 및 학교 전교생 1200여 명이 참여했다.

기념식은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미얀마시 법회에 이어 월서 스님 법문과 미얀마 마을 대표의 감사인사, 학교기금 및 선물 증정 등 순서로 진행됐다.

월서 스님은 지난 6월 19일 미얀마 북부 유네스코 유적지인 바간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쉼터마을 학교의 딱한 사정을 접하고 학교 건립을 지원해왔다.

기념식에서 월서 스님은 이날 월서 스님은 만법귀일(萬法歸一), 처염상정(處染



천호 월서 희망재단(이사장 월서, 법주사 조실)은 11월 14일 미얀마 오지 마을에 학교를 완공하고, 기념행사를 열었다.

常淨) 등의 휘호를 직접 쓰고 뜻을 설명하면서 마을 주민들을 격려했고, 5만불을 학교 건립에 기증했다.

월서 스님은 학교 건립을 계기로 한국 불교와 미얀마 불교 및 문화교류를 제안하면서 "세계적으로 공헌하는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길 바란다"며 향후 지속적인 약속을 지원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88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시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4년 12월 22일 까지
- ◆개강일시 : 2014년 12월 22(일요일) 개강.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 ① 명리학: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 ② 성명학: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개강일시: 2014년 12월 中 (매주 목)◀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청진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탐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 제6회 원효학술상(元曉學術賞) 공모

(재)대한불교진흥원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에서는 '세계 속의 한국 철학, 한국 철학 속의 세계'라는 슬로건 아래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 철학의 세계화를 주도할 학자를 격려하고 인재를 육성해 한국 철학이 국제 사회에서 세계 철학을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효학술상을 공모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 및 월간 '불교문화', 공모 내용을 필히 참조 바람.]

- 공모 주제: 『불교의 현대화와 국제화』  
(※상기 주제에 다음 각 부문 중 자유선택·1인 1편 응모)  
-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 철학의 세계화를 위한 불교사상 연구 부문  
- 서양사상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 관점에서 본 서양사상 연구 부문  
- 동양사상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 관점에서 본 동양사상 연구 부문
- 시상 부문 및 상금: - 교수(교수 이상 및 그에 준하는 자), 저술상: 1,000만원 혹은 논문상: 700만원  
- 박사과정 후 비(非) 전임교수 1인, 논문상(저서 포함): 500만원  
- 석·박사 과정 학생 3인 이내: 금상(300만원), 은상(250만원), 동상(200만원)  
(모든 부문 공통: 국내 및 해외국민, 외국인 포함 / 외국인의 경우 영어에 한함)
- 제출 자료: 1) 지원서 1부(양식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f.org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저서 2부, 논문(별책본) 3부  
① 학생 논문인 경우 교수(교수 이상 및 그에 준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것  
② 심사 대상 작품은 최근 5년 이내(2010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까지)에 발표된 것에 한함 (저서는 ISBN 등록본).  
3) 외국인의 경우 영어에 한하며, 한국어본 초록(A4 3매 내외)을 제출해야 함.
- 접수: 1) 접수 기간: 2015년 1월 2일(금) ~ 2015년 2월 27일(금)까지  
2) 접수 방법: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 유효)  
3) 접수처: 주소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15층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원효학술상 담당자, 전화 02)719-2606  
\*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십시오(www.kbpf.org@chul.com).
- 수상자 선정 및 시상식: 1) 심사 후 선정 및 통보: 2015년 4월 중(선정자에 한해서 개별 통보)  
\*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부문 또는 상금 내용에 변경이 있을 수도 있음.  
2) 시상식: 2015년 5월 중(추후 공지)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